

광주FC, 엄지성 이적료 3년간 나눠 받는다

구두 합의 단계서 환송회까지 개최 이후 스완지서 분할 납부 관련 제안 출국 및 메디컬 테스트도 함께 지연 "합의서 안 썼는데 발표... 이해 불가"

광주FC가 '프랜차이즈스타' 엄지성을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떠나보낸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적 과정에서 사무처의 보고 체계 무시와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내부 평가에 못 미치는 이적료마저 분할 수령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스완지 시티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구단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엄지성과 4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완지 시티는 엄지성에게 등번호 10번을 부여했으며 이적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광주FC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엄지성이 스완지 시티로 이적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5일에는 광



EFL 챔피언십 소속 스완지 시티 AFC가 광주FC에서 영입한 엄지성과 4년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스완지 시티 AFC 홈페이지

주시청 로비에서 환송식을 열고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의미함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통상적으

로 이적에 있어서 선수를 떠나보내는 팀과 데려가는 팀은 공식 발표 시점을 조율해 함께 공지한다.

하지만 광주FC와 스완지 시티의 공식 발표에는 이례적으로 12일의 공백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 축구계 관계자는 "광주FC의 공식 발표 당시 양 구단은 합의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두로만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한 쪽이라도 어깃장을 놓으면 엄지성의 이적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광주FC가 선불리 공식 발표를 진행하고 환송식까지 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FC는 공식 발표 이후에도 스완지 시티와 협상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적료는 120만 달러(약 16억 6000만원) 규모로 균어진 상황이었지만 스완지 시티가 FFP(Financial Fair Play·재정적 페어플레이) 룰과 대출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분할 납부를 요구하면서 이적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스완지 시티가 독점 협상권을 보유했던 에이전트를 통해 광주FC에 이적료를 50만달러, 50만달러, 20만달러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갑작스럽게 전달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구단이 선수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의식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FC가 스완지 시티로부터 이적료를 나눠 받게 되면서 추가 등록 기간 선수 영입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정 건전화 제도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약 3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황이나 당장의 이적료 수입이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

이정호 감독 역시 이 상황에 대해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감독은 "브루노를 영입할 때 재정 건전화 제도로 인해 추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7월 전에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며 "여러 선수 영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니 굉장히 황당하고 불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수단 규모를 39명으로 꾸렸더라도 여름에는 선수를 내보내거나 데려와야 한다. 영입이나 트레이드 제의도 많은데 등록 자체가 안되니 아예 보낼 수가 없다"며 "이적료 분할 납부도 마찬가지다. 모든 상황이 이미 이적이 확정된 것처럼 됐는데 여론을 잘못으로 선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FC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리 공식 발표와 환송식을 진행한 것은 엄지성의 프랜차이즈스타로서 상징성과 팬들의 마음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것.

광주FC 관계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적 확정 보도자료를 내고 환송식을 연 것은 구단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환송식에 대한 팬들의 요청이 있었고 선수단이 강릉과 울산 원정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열 수밖에 없었다. 유스 출신으로 100경기를 뒀던 선수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체고 양궁, 화랑기서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

2016년 종별선수권 이후 9년만에 광주 금5 은2... 시·도 종합준우승

광주체육고 양궁팀이 전국대회에서 9년 만에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일켰다.

광주체고 양궁팀은 지난 8-13일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화랑기 제45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광주체고 최우진(3년)·배정원(2년)·박주혁·심유한(이상 1년)은 남고부 단체전에 출전해 강원(6-2 승), 대구(5-3 승), 경남(6-2 승)을 연파한 뒤 결승에서 대전을 5-3(56-55 55-58 58-55 55-55)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이다영(3년)·남지현·이을아(이상 2년)·김성령(1년)은 여고부 단체전에서 부산(6-0 승), 대구(6-0 승), 대전(5-3 승)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서 경기를 상대로 6-2(55-51 53-53 55-55 56-53)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고가 전국대회에서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한 것은 2016년 종별선수권 대회 이후 9년 만이자 화랑기대회에선 처음이다.

박주혁과 남지현은 고등부 혼성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주혁-남지현은 결승서 경기 권태연-김예원을 만나 2-6(34-36 37-36 35-37 34-37)로 석패했다.

박주혁은 남고부 싱글라운드 50m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추가했다. 50m에선 342점을 쏘 1위를 했고, 개인전에선 결승서 붙은 대전체고 박은성에 1-7(28-28 25-30 28-29 27-29)로 졌다.

광주체육중 모성용(3년)은 남중부 싱글라운드 거리별 60m(343점)와 30m(354점)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 2관왕에 올랐다.

금메달 5개와 은 2개를 획득한 광주는 대전에 이어 시·도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 하키, 한국대학실업연맹회장배 2연패

결승서 한체대 2-1 제압

조선대학교 하키가 한국대학실업연맹회장배 2연패 쾌거를 이뤘다.

조선대 하키팀은 16일 충북 제천 청풍국제하키장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실업연맹 회장배 남녀하키대회 남대부 결승에서 한국체대를 2-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조선대는 13일 8강전서 인제대를 7-3으로 물리친 뒤 15일 준결승서 순천향대를 5-3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조선대는 이날 결승에서 한국체대를 상대로 접전을 펼치며 2쿼터까지 득실점없이 마쳤다. 조선대는 3쿼터 3분 임도현(4년)의 페널티코너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4쿼터 2분 임도현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다. 조선대는 4쿼터 4분 한체대에 첫 실점을 허용했으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1점차 승리를 지켰다.

이로써 조선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올시즌 첫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뛰어난 경기력으로 조선대를 우승으로 이끈 수비수 이성민(4년)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임도현은 총 5골로 득점상을 받았다.

정용진 조선대 하키팀은 "무더위와 오락가락한 장마비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탄탄한 팀워크와 특유의 조직력으로 우승해 기쁘다"며 "10월 전국체전을 잘 준비해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고 양궁팀이 지난 13일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끝난 '화랑기 제45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우승 도전' 광주FC, 성남 꺾고 코리아컵 준결승 오른다

오늘 안방서 8강전 1·2부 자존심 대결



창단 첫 우승 도전을 펼치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이번에는 코리아컵 일정을 소화한다. K리그2 성남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1부리그 팀으로서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인다는 각오다.

광주는 1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성남과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을 치른다. 부천FC1995와 16강전에 이어 다시 하부리그 팀과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직전 경기인 인천유나이티드와 K리그1 23라운드 홈경기에서 0-2로 고배를 마셨다. 광주에서 강릉, 울산, 광주로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 체력적인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타이틀한 일정 속에서도 광주는 홈에서 연속해서 경기를 치

르게 됐다. 추가적인 이동 없이 광주에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광주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감독은 부천과 16강전에서도 노희동과 김경재, 이강현, 하승운 등 리그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던 자원들을 대거 선발 투입하며 체력을 안배했다.

출전 여부가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아사니다. 아사니는 지난 15일 막을 내린 유로 2024에 알바니아 국가대표로 차출돼 조별 예선 세 경기를 모두 선발 출장했다. 특히 크로아티아와 맞대결에서는 카짐라치의 선제골을 도우며 어시스트를 올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사니는 유로 2024에서 복귀한 직후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으며 휴식을 취했으나 최근 팀 훈련에 복귀했다. 이정호 감독도 "아사니가 우리의 새로운 7번이 될 것"이라며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 코리아컵에도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남은 올 시즌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이기형 감독 체제에서 최철우 감독 체제로 변화를 줬으나 최근 5경기 무승으로 12위까지 추락했다. 코리아컵 16강전에는 같은 리그 소속의 충북청주FC를 상대로 연장까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5-4 진땀승을 거뒀다.

광주는 성남을 상대로 다득점과 함께 무실점 승리를 노린다. 부천과 16강전에서 박태준과 이근희, 가브리엘까지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기를 가져왔으나 황재환과 바사니에게 만회골을 내주면서 수비에서는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광주의 가장 큰 무기는 간절함이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간절함을 갖고 필드를 누빈다. 조성권과 포포비치, 오후성, 브루노 등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자원들이 칼을 갈고 있고 이들이 투입되더라도 주도권 측구리는 확실한 색채로 승리에 도전할 전망이다.

한규빈 기자